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2020.11.6 | 금 | 13:30 - 17:00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Program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 일 시 | 2020. 11. 6. (금), 13:30 ~ 17:00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 일정표 |

제1부: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구 분	진 행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14:05~14:15	환영사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4:15~14:35	축사	성경룡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경철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박혜원 (한국아동학회 회장)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Dr. W. Steven Barnett (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Dr. Bernhard Kalicki (독일 Deutsches Jugendinstitut)
14:35~14:40	육아정책연구소 15년 발자취 동영상	
14:40~14:50	육아정책연구소 성과보고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
14:50~14:55	육아정책연구소 웹툰 공모전 시상	
14:55~15:00	“육아정책연구소에게 바란다” 영상 메시지	

Program

Ⅰ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제2부: 2020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아이행복, 육아행복 시각으로 본 육아정책 현황과 과제”

구 분	진 행 내 용	
사회: 김은영 (저출산·육아정책실장)		
15:00~15:05	포럼 소개 및 인사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5:05~15:20	기조강연	왜 육아행복인가?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5:20~15:50	주제발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장)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 방안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임신부·영유아지원센터장)
15:50~16:00	휴식	
16:00~16:40	지정토론	좌장: 박혜원 회장(한국아동학회) 유구종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정선욱 회장(한국아동복지학회) 최병민 부회장(한국모자보건학회) 김혜영 이사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창곤 선임기자(한겨레신문) 문유진 이사장(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16:40~16:50	질의응답 및 폐회	

Contents

I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제1부: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 환 영 사 | _____ **3**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 _____ **5**

성경룡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경철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박혜원 (한국아동학회 회장)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Dr. W. Steven Barnett

(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Dr. Bernhard Kalicki (독일 Deutsches Jugendinstitut)

| 발 표 | 육아정책연구소 성과보고 _____ **15**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

| 영 상 |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 _____ **31**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남윤명 (KICCE 육아문화크리에이터즈)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문재윤 (초등돌봄교사/초등 자녀 부모)

Contents

Ⅰ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제2부: 2020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아이행복, 육아행복 시각으로 본 육아정책 현황과 과제”

기 조 강 연 왜 육아행복인가? —————	35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	43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장)	
주제발표 2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 방안 —————	59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임산부·영유아지원센터장)	
지 정 토 론 토 론 —————	77
유구종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정선옥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최병민 (한국모자보건학회 부회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장)	

| 제1부 |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환영사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0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에 설립되어, 보육, 유아교육, 육아 관련 연구 및 평가, 정책개발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 일-가정-생활의 균형, 육아문화 개선 등 보육과 육아 관련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보육 지원체계 개편, 사립유치원 투명성 제고,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연구수행 방식 측면에서도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결합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0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에서는 「아이행복, 육아행복 시각으로 본 육아정책 과제와 전망」라는 주제 아래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육아친화마을’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들은 임신·출산의

시점부터,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한 문화와 사회환경 조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유아 보육·교육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포괄적인 정책영역으로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지난 1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육아정책연구소는 '아이행복과 육아행복'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가 나아가는 길을 응원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육아정책연구소의 창립 15주년을 축하하고 중요한 연구를 나누는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축사

서형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형수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제 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함께 개최되는 자리에서 축하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여성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지우던 육아부담을 국가 정책화하는데 큰 공을 세운,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발전을 이끌어온 연구기관입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노무현 정부는 국가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의 복합적 요인에 대응하여 육아지원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기관으로서 ‘육아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같은 해에 함께 태어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개인과 가계의 부담을 사회가 공유하는 ‘평등한 남녀, 함께 키우는 아동’이라는 큰 그림 하에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새롭게 사무처를 구성한 위원회는 이듬 해 12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책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 위해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과감한 투자를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하는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중심의 돌봄 인프라 구축과 강력한 일생활 균형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육아가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지 않고 부모들이 가져야 할 육아의 기쁨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두가 아다시피 저출산의 문제는 위원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문제분석과 대안 연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창립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에서 논의될 양육편의적 시각에서 벗어난 아이의 행복을 중심으로 한 육아정책 연구는 새로운 육아정책의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연구와 정책의 관계는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견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립기념식과 포럼 준비에 애써주신 백선희 소장님을 비롯한 육아정책연구소 구성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대한민국 변화가 시작되는 2020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형수



축전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념식과 포럼을 준비해주신 백선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면 사회는 빛을 잃습니다.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존립도 함께 흔들립니다.

모두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시도록 용기를 북돋아 드려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이 말에 우리 육아정책이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단순한 국책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그 변함없는 역할 부탁드립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올림

축사

김경철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창립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쁜 자리에 참석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유아교육, 보육을 비롯한 육아관련 제반 연구 및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지 벌써 15주년이 되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그리고 육아정책은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하나 우선 순위에서는 항상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치열한 갈등 끝에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모든 유아는 그 출신 배경, 개인적 차이, 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행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통합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는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연구소가 종합적, 체계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내면서 우리나라의 육아 현실을 개선에 최선을 거듭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문구로 좋은 음식점을 광고하면서 그 음식점의 요리를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을 잊지 못해 계속 이용한다는 뜻이지요. 아마도 저한테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러한 광고문구가 적절히 사용될 만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를 아직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연구소 결과를 접해본 사람은 계속해서 연구소의 성과를 기대하고

이용하고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이 앞으로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연구소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육아정책을 넘어선 세계의 육아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을 다시 한 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김경철

축사

박혜원 회장 (한국아동학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학회 회장 울산대학교 박혜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에 육아정책연구소의 15번째 생일을 맞아 기념행사와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개최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COVID-19사태로 일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행사와 포럼을 준비하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백선희 소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설립된 이후 육아정책연구소는 명실공히 한국 아동과 육아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동의 발달과 양육환경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10여 년간 지속된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통해 아동과 육아에 관한 최고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질 높은 연구와 육아정책개발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소장님께서 밝히신 것과 같이 내년부터는 새로운 신생아 코호트를 구성하여 영유아 보육교육패널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 또한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행복을 위한 육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생태적 발전, 인간과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인간 존재들과의 공생을 고려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담론들을 더욱 활발히 생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아동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육아정책연구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한국아동학회 회장 박혜원

축사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안녕하십니까.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양진옥 대표입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소로 출발하여 지난 15년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삶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싱크탱크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 새롭고 혁신적인 육아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소를 일구어오면서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연구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과 많은 도전과제 속에서도 단계단계 잘 헤쳐 나가시면서 오늘의 성장하고 발전된 연구소로 이끌어 오신 백선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여년동안 우리사회의 아동, 육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너무나 컸습니다. 초저출산의 위기와 아동학대사례와 아동사망수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육아환경 악화 등 육아관련 제반연구에 영향을 주는 변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변화와 혁신도 그에 못지 않은 노력으로 새로운 정책형성과 수립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육아 뿐 아니라 아동과 부모의 삶, 이를 지원하는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아이행복과 육아행복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 주었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구, 육아친화마을 모델 제시 등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 영역과 대상을 확장해 왔습니다. 연구방식 또한 정책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발전적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다양한 섹터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는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법과 제도, 정책반영을 위한 연구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정책에 대한 이해의 장도 부족하고 연구의 기능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현장과의 간담회,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민간과의 어젠다 발굴과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과 육아문제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 정책연구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회이슈로 계속 부각되어 어려운 주제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중장기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먼저 나서서 코로나 19로 육아돌봄에 지친 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방안을 사업으로 기획하여 연구생태계포럼 기관들과 함께 육아지원키트와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내는 등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연구소의 모습을 많은 분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현장에 보내주신 백선희 소장님의 열정과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연구원들의 열심과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과 돌봄의 변화는 영유아와 아동,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커져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육아환경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 19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영유아들을 위한 육아정책이 앞으로 어떤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보여준 육아정책연구소의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 정책연구 범위의 확대와 다각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환경의 대응과 육아정책의 대안 제시에 앞으로도 연구 생태계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변화와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리라 기대하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구어 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5년, 3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육아정책연구소의 창립 15주년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바라며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양진옥

발표

육아정책연구소 성과보고

김 은 설(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



발표

육아정책연구소 성과보고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



2020 육아정책연구소
성과보고
목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01 경영 목표
- 02 운영 현황과 성과
- 03 연도별 주요 발자취
- 04 연구 분야 성과
- 05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01

경영 목표

경영 목표 설립목적 · 비전 · 중장기 발전목표 · 핵심가치

2018~2020 경영목표

설립목적 종합적 육아정책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

비전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사회를 실현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중장기 발전목표

4

경영 목표 핵심가치 · 경영 목표 & 추진전략

핵심가치

행복 — 소통 — 혁신 — 공정 — 공유

경영목표 & 추진전략

육아정책 연구 영역 확대 및 정책 개발 선도	한국 육아정책 연구의 글로벌 플랫폼 실현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	열린 혁신 경영을 통한 행복한 일터 실현과 사회공헌
육아정책 아젠다의 선제적 발굴	한국 육아정책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 기능 구축	산·학·연 및 다학제간 협동연구 활성화	혁신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인구 및 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영역 확장	국제 육아정책 연구 정보 생산과 개발도상국 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신뢰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
육아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	한국 대표 국책 연구 기관으로서 위상 재정립	정책수요자의 연구 참여 및 성과공유 확대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공헌 활성화

5

02

운영 현황과 성과

1. 조직 구조의 변화
2. 인력 구조의 변화
3. 예산 규모의 변화

조직 구조의 변화

2018

- 성과공유팀 신설 (홍보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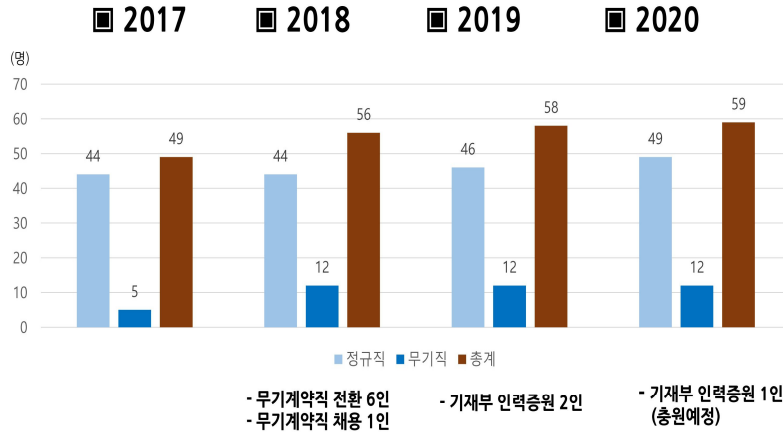
2019

- 미래전략추진단 (미래/정책 대응)
- 인재개발팀 (인사, 노무 업무 효율화)
- 유아교육지원센터(정부정책지원 강화)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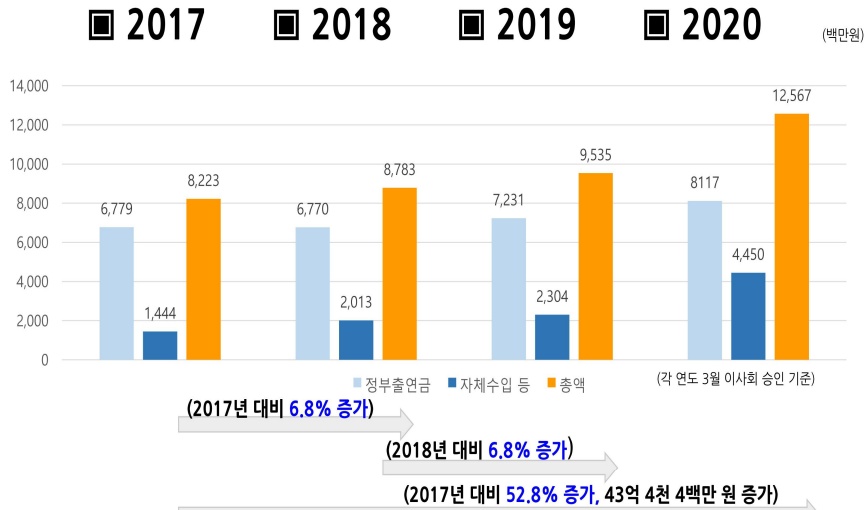
- 임산부영양지원센터 (정부사업지원)

인력 구조의 변화



8

예산 규모의 변화



9




2018~2020 주요 발자취

2018 ~ Present

- 2020.07.02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협력기관 선정
- 2020.02.24. KICCE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발족
- 2020.01.15. 육아정책연구소 임신부·영유아지원센터 신설
- 2019.12.23. 명동 포스트타워로 청사 이전
- 2019.11.01.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4주년 기념,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9.10.25. OECD TALIS Starting Strong 발간기념 '한-OECD 유아교육·보육 교원정책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 2019.05.23.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지원센터 신설
- 2019.05.21. 201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혁신기관상' 수상
- 2019.05.10. UN SDG 4.2 비전선포식 및 연합학술대회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 개최
- 2019.01.11.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조사데이터, 공공데이터 최초 개방
- 2018.12.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SCOPUS 등재
- 2018.09.18. KICCE 육아정책연구생태계포럼 발족
- 2018.05.14. 제1차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세미나 개최

2010 ~ 2017

- 2017.12.08. 육아정책연구소 제5대 백선희 소장 선임



04 연구 분야 성과

1. 저출산 대응 육아정책연구 선도를 위한 연구 영역 확장
2. 육아정책 관련 이슈 신속 대응 및 정부 정책 지원
3. 다양한 수요자 의견 수렴 및 연구 참여 기회 마련
4. 연구보고서 질 제고 노력
5. 연구성과의 공유와 홍보 강화

연구 분야 성과

저출산 대응 육아정책연구 선도를 위한 연구 영역 확장

◦ 저출산 대응 정책연구 선도를 위한 연구 체계 개선

- 연구과제 수요조사 대상의 양적, 질적 확대: 시민단체, 정책영향력 단체, NGO, 파워블로거 등 새로운 대상 범위로 확대
- 정책연구협의회 대상의 확대: 기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부처 확대함
- 정책 주요 이슈 원내 공유: KICCE 브라운백 정책미팅, 과제별 대외 토론회를 실시하여 정부 국정과제 공유, 토론의 장 마련

◦ 인구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영역 확장

- '저출산 대응/ 아동정책/ 육아환경 조성 분야 연구를 강화하여 정책 연구 과제 과제 개발
 - ▶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
 - ▶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 운영 방안 연구
 - ▶ 돌봄친화적 에코스마트시티 추진방안 연구
 - ▶ 육아중증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인식 조성 방안 연구
 - ▶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 ▶ 육아친화적 주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연구 분야 성과

충실한 정부 정책 지원 및 육아정책 관련 이슈 신속 대응

• 정부 정책 지원

- 2019 누리과정 개정 및 표준보육과정 개정 지원 :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 놀이자료 개발, 교육활동 지원 연구, 담당자 연구 지원 등
- 교육부 교육력 제고 정책 연구 지원 : 유치원운영위원회 개선, 유치원 설립폐원 제도 개선, 재무회계 규칙 개선 연구 등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 사업 지원 및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수행, 산후조리원 평가 사업 진행 등

• 육아정책 관련 이슈 대응

- 전문가 및 관련자 간담회를 통한 긴급 이슈 대응 : 보육지원체계개편,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등
- 기자간담회 개최를 통한 이슈 대응 : 아동학대, 누리과정 개정, 육아분야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
-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정책 방향 제안
- 육아정책 브리프, 육아정책포럼 등 전문지 발간을 통한 이슈 대응

연구 분야 성과

다양한 수요자 의견 수렴 및 연구 참여 기회 마련

• 열린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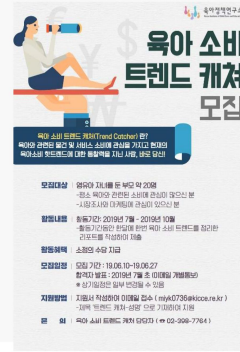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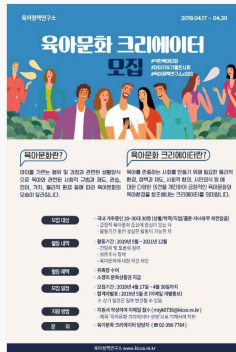
- 학계 전문가, 부모 및 교육·보육 현장 전문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참여하여 육아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함. 총 10여 회 개최

• 현장간담회 개최

- 비혼부모가족, 농산어촌, 다문화 배경, 장애 아 부모, 환아 부모, 저소득 가구, 맞벌이 부모 등 육아 소외집단이 가진 육아 문제를 정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 개발, 3년 간 매년 4~7차례 진행

• 국민 참여 기회 부여

-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육아소비트렌드 캐처, 누리과정 보급을 위한 100인의 자문단 등



연구 분야 성과

정책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노력

◦ 정책검토위원회 신설 개최 및 보고서 집체 평가 실시

- 전문가, 부처 관련자, 정책전문 연구자로 이루어진 검토위원회, 평가 위원 구성으로 정책 보고서 질 제고 노력 및 성과

◦ 연구과제별 전문가 참여 토론회 활성화 외부 전문가 공동연구자 활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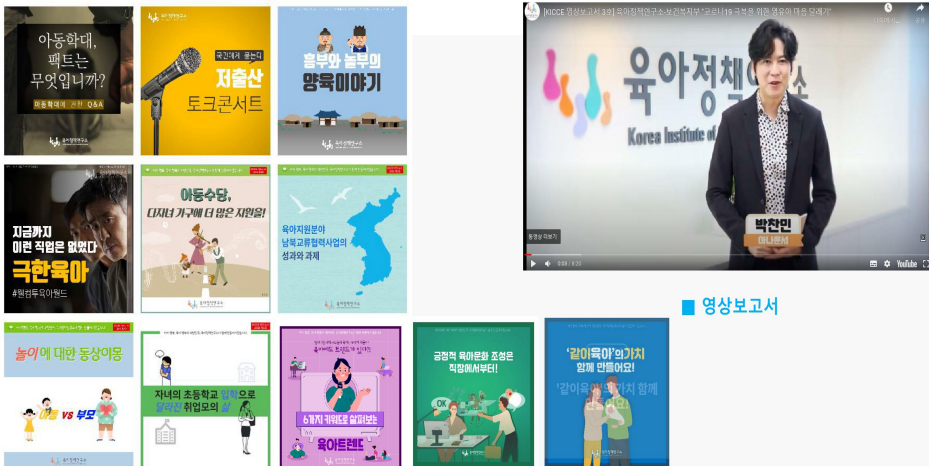
- 연간 10회 이상 토론회 개최(2018, 2019년)/ - 의학, 경영학, 사회학, 체육학, 법학, 여성학, 건축학 등 참여 공동연구자의 전문 분야 다양화

◦ 외부 전문가의 연구과제 공동연구자 활용 확대

- 의학, 경영학, 사회학, 체육학, 법학, 여성학, 건축학 등 참여 공동연구자의 전문 분야 다양화

연구 분야 성과

연구성과의 공유와 홍보 강화 :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정책 정보 제공



▶ 영상보고서

▶ 카드뉴스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1. 연구환경 개선
2. 육아정책 네트워크 재구조화와 국내외 협력 강화
3. 연구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4. 직장문화 개선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연구환경 개선: 1. 청사 이전

- 명동 포스트 타워로 청사 이전(2020. 12) 구분

구분	청사이전 전	청사이전 후
예산	925백만원	1,010백만원
전용면적	1,536㎡	1,779㎡
위치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연구환경 개선: 2. 정보화 추구

- 육아연구소 대표 홈페이지 리뉴얼
- 누리과정포털 사이트 (I-누리) 구축, 운영 >> 교육부 개정 누리과정 안착 사업 지원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공공데이터 개방
- 연구자 개인별 온라인 화상 회의 지원 기기 설치
- 원격근무지원 인프라 및 VPN 도입을 통한 그룹웨어 외부 접근성 확보(2020년 완료 예정)
- 화상회의실 설치 (진행중, 2020년 완료 예정)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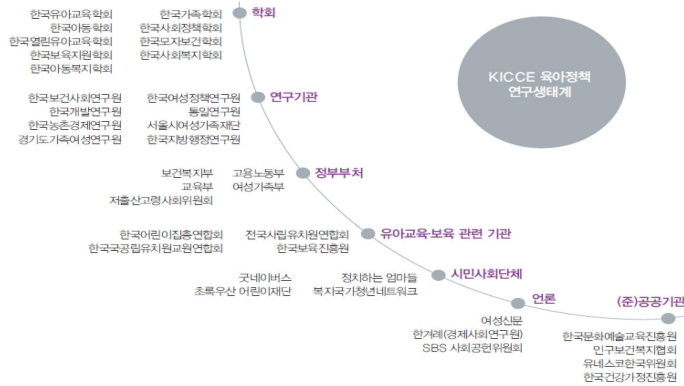
연구환경 개선: 3. 안전한 연구소_코로나 대응

☐ 코로나19 대응(2020)

행정분야	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화상 카메라 출입 시스템 도입(2. 13) - 시설 내 주요 공간 소독방역 실시(3. 6) - 돌봄 재택근무 시행 - 중대본 지침에 따른 기관 복무지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 공백 지원 방안 -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지원 활동 - 코로나19,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활동 tip 제공 -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극복 심리방역시리즈 4종 - 하니금융그룹-굿네이버스-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극복 영유아돌봄지원사업 등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육아정책 네트워크 재구조화: 육아정책생태계 포럼 구축



연도별 MOU 신규 체결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현재)
MOU 체결	9건	8건	3건
기관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 8건	하나금융그룹 외 7건	아동권리보장원 외 2건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국제 기구, 정부, 단체와의 협력 강화

• 국제기구와 협동 연구 및 공동 연구 수행

- OECD, UNESCO, Euro Found, ARNEC 등

• 해외 기관과의 연구 협력, 합동 학술 행사 등 개최

- 미국 국립유아교육연구소(NIEER), 미우주항공국(NASA), 중국국립교육과학원 등 기관/단체와 공동연구, 학술행사 등 공동개최

• 외국 정부와의 개발 협력

- 베트남 교육부, 피지 교육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등 아태지역 3개국 정부와의 협력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연구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사회공헌위원회 추진경과 및 현황

사회공헌위원회 구성(2018. 10. 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운영(2020. 5)

▣ 활동 내용

- 하나금융그룹사회공헌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민관협력 방안 제안 등
- SBS 희망 TV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프로그램 기획 참여
- 육아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올어도 괜찮아' 캠페인 실시
- 이주배경 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
- 하나금융그룹, 굿네이버스와 코로나19 극복 영유아 돌봄지원사업 공동 추진
- 굿네이버스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캠페인 '놀이는 같이, 놀이의 가치' 공동 추진
- 사회적 기업 활용 물품구매·계약 사회적 기업 활용 및 우선 구매



연구지원 및 경영 분야 성과

직장문화의 개선: 행복한 일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행복한일터위원회

▣ KICCE 행복한 일터 혁신 10대 과제 선정 및 캠페인



▣ 소장배 전직원 볼링대회 개최('18)



▣ 2020 KICCE 바자회('20)



감사합니다.



영상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남윤명 (KICCE 육아문화크리에이터즈)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문재윤 (초등돌봄교사/초등 자녀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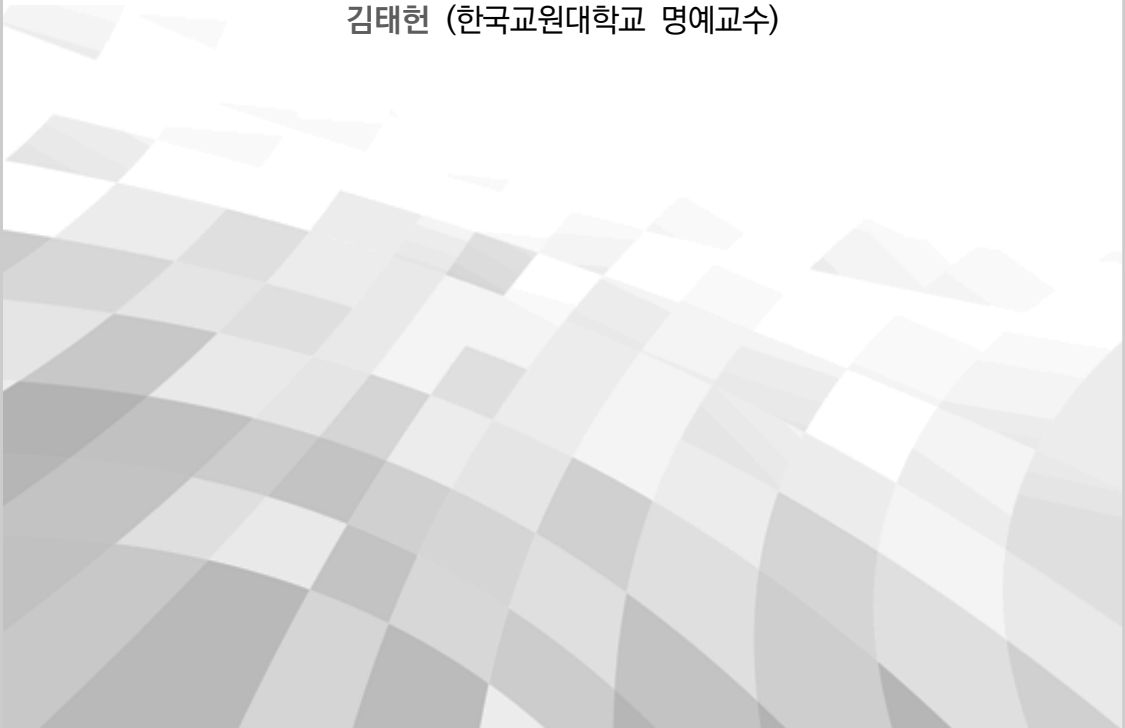
| 제2부 |

2020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아이행복, 육아행복 시각으로 본 육아정책 현황과 과제”

기조강연

왜 육아행복인가?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기조강연

왜 육아행복인가?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2020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왜 육아행복인가?

2020. 11. 06(금)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

김 태 헌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인구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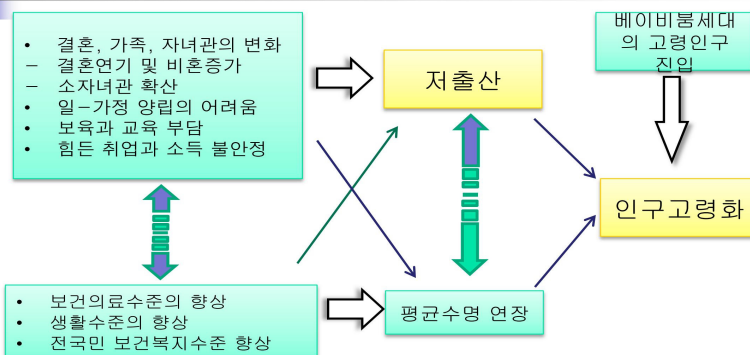
목 차

1. 인구변동의 특징
2. 자녀에 대한 가치
3. 육아의 행복 = 엄마의 행복
(마무리)



1. 인구변동의 특징

왜 저출산이 문제인가?



- 저출산 -> 고령화 -> 개인과 사회에 직접 영향



1. 인구변동의 특징(계속)

우리나라 출산동향(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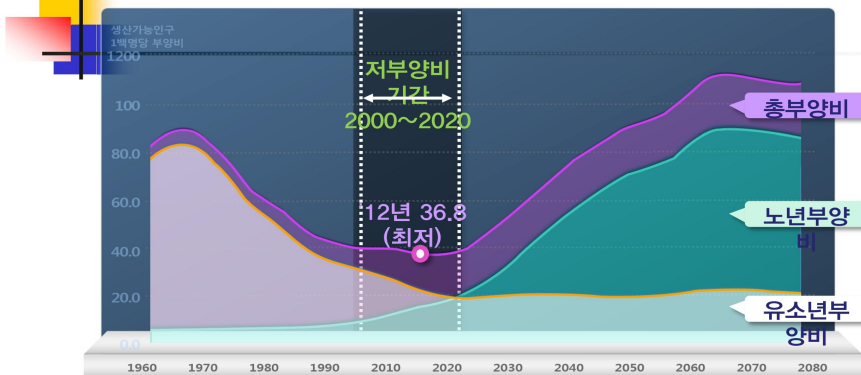
1. 정상적인 사회유지가 어려운 출산수준
 - TFR(2019)=0.92, TFR(2020)=??
(정상사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의 출산수준)
2. 지속적인 출생아수의 급감
 - 100만명(1970)->60~70만명(1980~'90년대)->40만명대(2000년대)
->30만명대(2017~)->20만명대(? 2020~)
3. 출생아수와 출산율의 전망
 - 모의 인구: 일시적 증가(1990년대 초 출생) 후 감소지속(1995년 이후 출생)
 - COVID-19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급감(2020.08월 전년비 18% 감소)
 -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확산

-> 앞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고, 지속적인 출산감소 예상
(참고) 2017년기준 통계청 가정: TFR=0.94(2019), 0.90(2020), 2021(0.86)



1. 인구변동의 특징(계속)

“골든 타임?” 이미 지난 지 오래!



- 베이비 붐 세대(1955~'74)가 2020부터 20년간 고령인구로 진입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시기가 출산율 회복의 적기??
- > 포기냐? (이민과 동일은 대안이 될 수 없음)
- > 출산.육아환경 조성 and 인식변화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된다면?



2. 자녀의 가치



가. 비용가치와 효용가치

1) 비용가치

- 보육,교육비 자녀당 3억1천만원? (2012년 정부 발표자료)
(참고) 총액의 42.2%가 가족공동비용
자녀개인비용 57,8% 중 33.2%가 사교육비)
- 여성의 취업, 전문화로 기회비용 상승

2) 효용가치

- 자녀로부터의 심리적 만족과 행복
- 가족 구성원간의 협력과 의존
- 가업과 가계 계승

=> (대안) 유형의 비용가치를 줄이고, 무형의 효용가치를 늘려야!

- 국가와 사회의 지원(제도, 재정)으로 획기적인 개인부담경감
(특히, 사교육비의 가시적 경감을 위한 국가대책 필요)
- 사회의 새로운 문화 조성으로 개인의 인식변화 기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2. 자녀의 가치(계속)



나. 행복이란?

1) 개인의 인식

$$- \text{행복지수} = \frac{\text{소유하고 있는 것 (자녀 양육,교육 실현 정도)}}{\text{원하는 것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욕구)}} \times K$$

=> "행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인식의 문제'

2) 국가와 사회의 역할

-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출산양육을 위한 필요조건)
- 임신부의 "자긍심"과 육아의 "즐거움"을 늘려주는 문화조성(충분조건)

=>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발전을 도모



3. 육아의 행복 = 엄마의 행복



가. 엄마의 행복

1) 엄마와 아이는 우리의 '영웅'

- 2019년 주 평균 출생 5명 이내: 59개 시군구(전국 시군구의 약 1/4)
(2명 이내는 11개 군)

- '부모됨'은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
- >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책임
(국가와 사회의 부담은 **미래의 지속발전을 위한 투자**)

2) 자긍심 제고와 사회인식의 전환

- 정부, 기업, 언론,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모두 함께 참여
- '부모됨의 행복'을 사회문화로 승화해야

(예1) 신문에서의 보도, 지역방송에서 소개 등(지역소식은 "오늘의 출산소식"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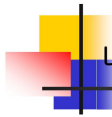
(예2) 축하 받는 결혼, 출산, 육아문화 조성

(예3) 자랑스러운 임신부 뱃지로

⇒ **엄마와 아빠가 "육아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3. 육아의 행복 = 엄마의 행복(계속)



나. COVID-19와 육아행복

1) COVID-19 이후의 육아환경 변화

- 재택근무와 시간제 근무의 증가(다양성과 유연성)
- 부모 공동육아 변화 -> 일-가정균형 사례증기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 => 일과 보육을 어떻게 균형? 어떻게 '육아의 행복' 달성?

2) 육아행복의 실현

- 다양하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제도(보육정책의 다원화)
-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위한 시간(시간의 질)을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문화
- 부부(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과 사회

⇒ **"육아가 기쁨이 되는 사회환경" 실현**

⇒ **개인의 "삶의 질"향상과 사회의 "지속발전"을 동시에**



< 마무리 >



“육아의 부담”을 “육아의 행복”으로 !!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 '예산 제약', '출산.육아의 부정적 체험' 등의 **“부정적 사회화”**를 지양하고,
- '출산과육아'의 기쁨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사회화”**를 추구하는

=> **인구정책**과 **육아정책**으로
우리 모두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장)



주제발표 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장)

출산과 양육, 육아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의 변화가 빠른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은 넘쳐나고 사용된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보도들을 접하지만 정작 정책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접근에서 나아가 실제 육아 환경인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검토와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역사회 자생력 생성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고려되고 있다. 다면적인 육아 지원정책들이 어떻게 아이를 기르고 있는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표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육아친화도시’가 아닌 ‘육아친화마을’로 명명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 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밀접한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온 마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고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¹⁾를 추진하였다.

1.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육아친화마을’이란

친화(親和)의 사전적 의미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차용하면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성격은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

1) 본고는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태를 의미한다. ‘육아친화(育兒親和) 환경이란 기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 가족친화와 유사하지만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부모권을 동시에 고려하며,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인식 개선, 공동체적 지원 등을 또한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따라서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건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을 의미한다.

2.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육아(育兒) 관련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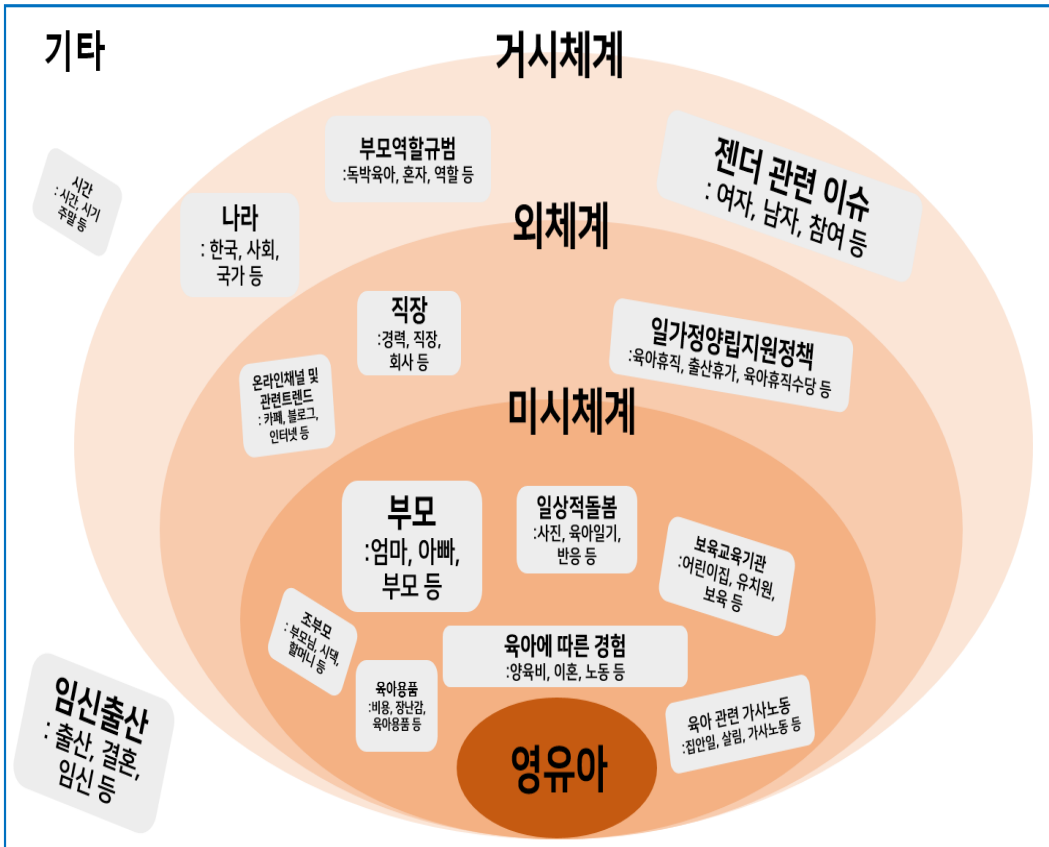
육아친화(育兒親和)적이라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육아와 관련되어 우리사회에서 소통되는 용어를 분석하여 육아 관련요소들을 살펴보았다. 2019년 육아문화 연구²⁾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뉴스, 카페,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육아 관련 빅데이터³⁾를 수집, 분석하여 ‘육아’와 관련한 주제어의 출현빈도를 정리하였다.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주제어 중 출현빈도가 1,000회 이상인 단어를 살펴보면, 미시체계에는 부모, 일상적 돌봄, 교육보육기관, 육아관련 가사노동, 육아용품, 조부모, 육아에 따른 경험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되었다. 외체계에는 직장, 일가정양립 정책, 온라인 채널 및 관련 콘텐츠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되며, 외체계 중 부모의 일 환경과 관련된 주제어가 포함된 ‘직장’에서는 ‘경력’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거시체계에는 젠더 관련 이슈, 나라, 부모역할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되며, 거시체계의 규범 중 ‘부모 역할’에서는 ‘독박육아’와 ‘혼자’, ‘젠더 관련 이슈’에서는 ‘여자’, ‘남자’ 그 외의 ‘참여’, ‘책임’, ‘분담’, ‘페미니즘’, ‘한남’, ‘성평등’과 같은 주제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2)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9-26.

3) 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가 선택한 채널들에서 문서들을 수집하는 크롤러를 통해 비정형 빅데이터의 분류 및 정제 기술로 축적한 자료를 활용함.

[그림 1]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



출처: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88. [그림 III-3-3]임.

3. ‘육아친화마을’의 구성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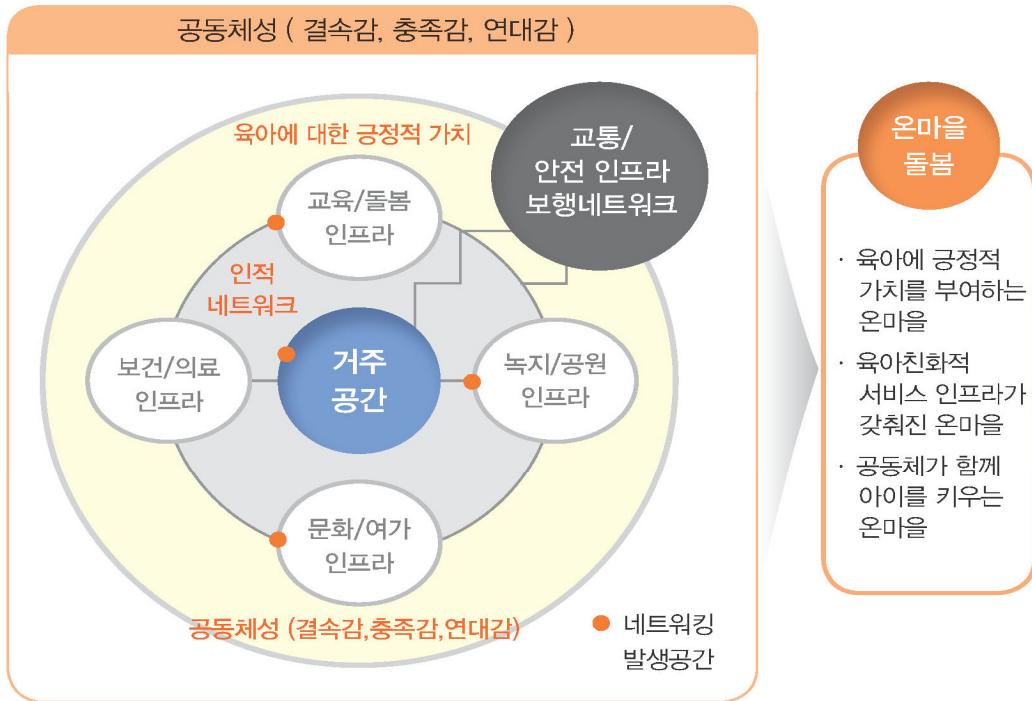
또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육아친화적 환경,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 요구를 정리하였다. 이는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유목화 가능하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육아친화마을의 구성 내용



이러한 요구를 지역사회,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면, 육아친화마을은 양육하는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학과 가치를 토대로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고 지지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이다.

[그림 3] 육아친화마을의 공간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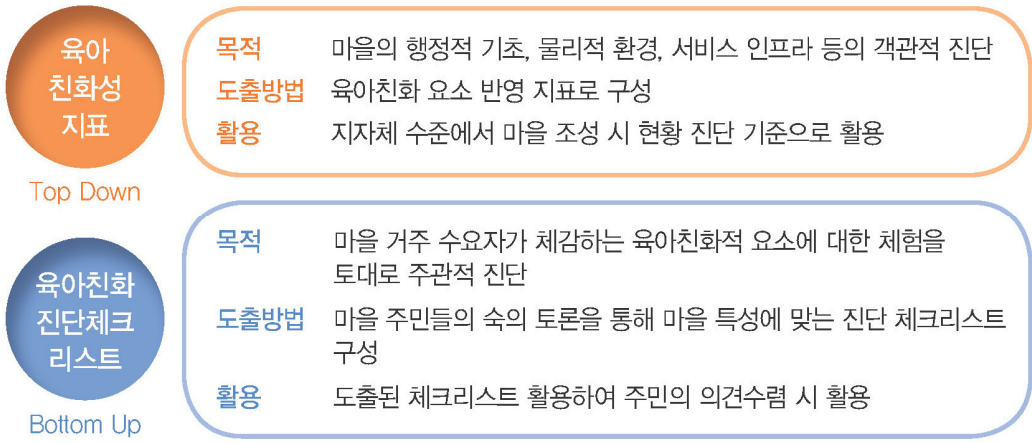
4.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육아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진단과 개선요구 수렴을 통한 대안의 마련과 실행의 과정이다.

첫째, 육아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은 육아친화를 가능할 수 있는 관련 계량 통계 자료인 지표⁴⁾를 통한 진단 분석과 더불어 아이 기르는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체감되는 정책의 실행을 위해 주민의 공론화된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환대(歡待)와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과정에 세대 간,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간 소통의 장(場)이, 참여의 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획되고,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객관적 환경진단을 위한 평가지표와 수요자의 체감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⁵⁾를 병행하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참고자료 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참조
 5) <참고자료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참조

[그림 4]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지표와 체크리스트



출처: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p. 23. <그림 I-1-1> 임.

둘째, 육아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은 지역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대도시 또는 농산어촌 지역,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신규 주거 조성지역 등 지역의 인구 특성, 아동 연령, 인구 구성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듈식 정책 풀(pool)의 구성이 필요하다. 2020년 현재 이를 반영한 2차년도 연구가 광명시, 남양주시, 공주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셋째,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영아기에는 유모차의 접근성, 유아기에는 보육 교육시설의 충분성, 자녀와 함께하는 공간 조성, 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와의 접근성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요구가 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친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어느 연령대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조성과 서비스의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정책 요구 및 지역특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례적인 관련 정책의 진단과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자체가 육아친화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나, 점진적으로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체감되는 육아친화마을이 조성될 것이므로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즉,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마을 진단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5]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 1단계: 지표적용을 통한 진단 단계

- 현재 육아친화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 적용을 통해 진단하는 과정으로 지역별 육아친화성을 육아 관련 직접자원 인프라와 간접자원 인프라 등을 진단하고 그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 및 점검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

- 육아친화마을에 담길 가치와 철학,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 체크리스트 풀(pool)을 행정 담당자, 지역 전문가들이 점검 또는 검토하고 주민참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함.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육아친화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은 기존의 지표들이 표준화된 적용으로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요구를 심도 있게 수렴하는 과정임.

[그림 6]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 워크숍



□ 3단계: 요구조사 실시

- 'KICCE 요구조사 초안'을 토대로 2단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을 구성하여 정책수요자,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함.
- 육아 중인 영아자녀, 유아자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육아친화성 현황 진단과 평가하고 지역의 육아친화성 향상 요구를 수렴함.

□ 4단계: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

-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함.

□ 1단계에서 지표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지자체의 부족한 육아 관련 자원인프라가 도출되며,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의 개발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워크숍으로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필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3단계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 부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수합되며, 4단계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현 정책의 개선점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됨.

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는 역할은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의 마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등 협력을 필요하므로 범부처 추진체를 구성하고, 자원과 예산을 '전체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육아친화 관련 지표를 매년 갱신하여 제공하고, 지표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에 관한 리포트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방분권 기초가 확대되고 지자체 행정 서비스에 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점에서는 지자체 역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주력해야한다. 무엇보다 육아

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조직, 인력과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 조례 제정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자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육아친화정도를 진단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어린이집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https://www.familynet.or.kr
	아동기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지역아동센터		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http://www.hjy.kr/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직원 수	읍면동	http://www.hjy.kr/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공원 /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여가 /문화	도서관 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현황	시군구	광역지자체기본통계
		문화시설		인구 십만 명 당 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 /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사고 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도로관리교통공단
		지역안전		화재, 범죄, 생활안전	시군구	e지방지표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가정 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참고자료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철학과 가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결속감, 연대감, 총족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내가 이 마을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언제든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이다움 인정	개별성 인정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성평등 육아문화	성평등 공간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 서비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
		성평등 가치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진다.
인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연결성	마을 내에 가족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적네트워크의 자원(자원 및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등).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은 양육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소통을 위한 공간	다양성 (온/오프라인)	공동체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ex: 지역맘카페)이 있다.
		접근성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편리성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질	교사 근로환경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교사 근무기간이 길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태도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보육(교육) 시간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보육 이외의 개인적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급간식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럽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보육(혹은 교육) 교구 수준이 만족스럽다.	
		공간 질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 공간이 충분하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다.
	공간의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용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투명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거리가 짧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량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은 안전하게 차량 운행한다.	
	공원 녹지 공간	접근성	비용 접근성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충분성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시설 안전성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인프라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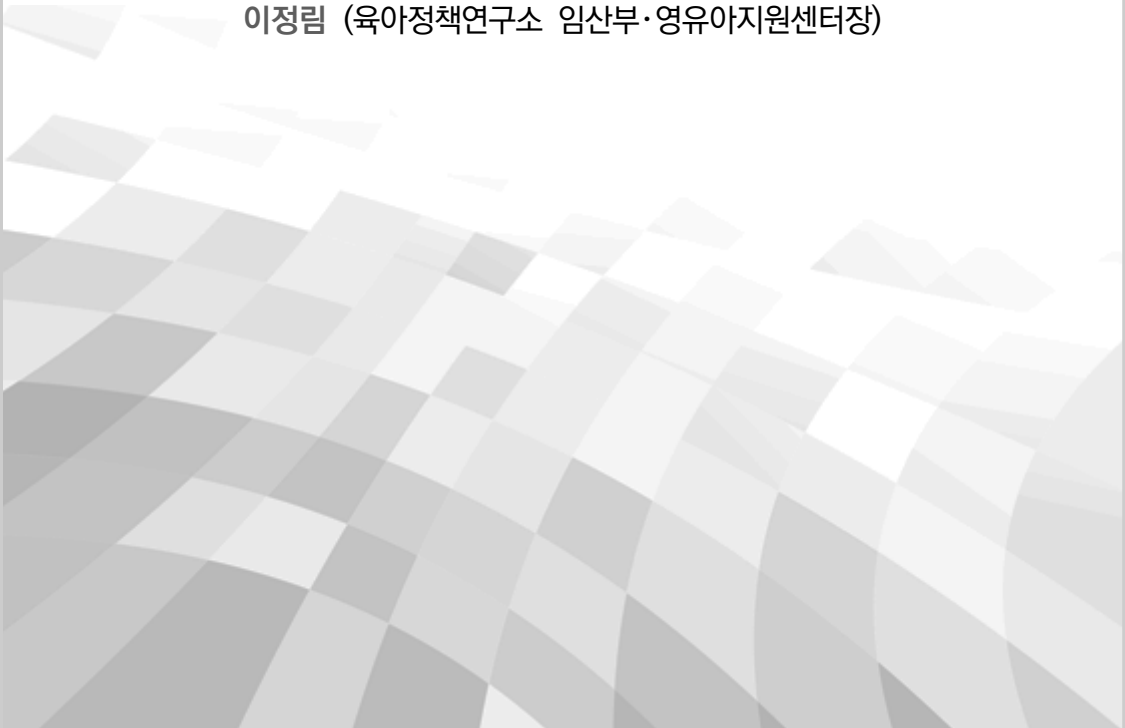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공간의 설계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여가 문화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비용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 충분성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 시설 안전성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개인 병원 등이 많다.
		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형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내가 사는 집에서 개인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서비스 질	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인력수	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병원 의료인 태도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물리적 환경	병원	대형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육아친화성	육아친화성	조성되어 있다.	
			개인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교통 보행 네트 워크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보행도로상태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다양성	대중교통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있다.	
	교통/ 운전문화	운전자의 태도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 태도를 갖고있다.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소방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	
	인력	방법인력순찰	경찰 등 방법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물리적 환경	치안장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	유해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보행도로	마을길은 밤에 안전하다.
행정 서비스 인프라	행정체계	조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예산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력의 태도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정보접근	정보의 충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편리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방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주제발표 2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 방안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임산부·영유아지원센터장)



주제발표 2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 방안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임산부·영유아지원센터장)

2020 육아정책연구소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 방안

2020.11.6

발표자: 이 정 림 임산부영유아지원센터장

<p>2020 육아정책연구소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방안</p> <h1>CONTENTS</h1> <p>육아정책연구소 Korea Child Policy Institute</p>	<p>01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p> <p>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p>
---	--

 <p>01</p>	<p>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방안</p> <h2>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h2>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배경 및 목적2. 연구방법3. 연구결과4. 정책 제언
--	--

01.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서비스 평가 기준 중심으로

1. 배경 및 목적

모아 애착
신생아 돌봄
모유 수유
산후우울증

집단 감염
및 안전

↑
관심 증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규정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4

01.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서비스 평가 기준 중심으로

2. 연구 방법

- 1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수행된 기존의 보고서 분석
- 2

산모 신생아를 위한 비용지원, 물품지원, 서비스 지원, 인프라 지원 정책 등 검토,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분석
- 3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 총 14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 5

이. 모자간중점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중심으로

3. 연구 결과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참여기관 수: 총 13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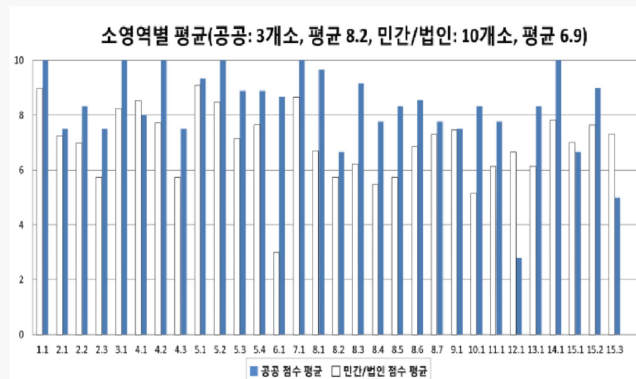
평가방법	대상	지역	참여기관수
현장평가	공공산후조리원	-	3개소
	민간 산후조리원	서울3개, 경기 4개, 인천 1개, 경남 1개, 전북 1개	10개소

이. 모자간중점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중심으로

3. 연구 결과

소영역별 평균 점수

- 민간/법인(10개소) 6.9점
- 공공(3개소) 8.2점



4. 정책 제언 1

이.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서비스 평가 기준 중심으로

시범평가 결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의 현장적용을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함

정책 제언 향후 3년을 이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설정

연계 연구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2019~2021)
*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고서(2019)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수정 및 보완
2) 컨설팅트용 교육 매뉴얼 제작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고서(2019)

별책 2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2019)

별책 3 컨설팅트용 교육 매뉴얼(2019)

육아정책연구소

8

4. 정책 제언 2

이.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서비스 평가 기준 중심으로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 질 제고 및 향후 평가준비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규정 및 서식의 표준화 필요

정책 제언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마련 후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

연계 연구 *산후조리원 평가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보고서 (2019)
1)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사례집 개발

〈산후조리원 평가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보고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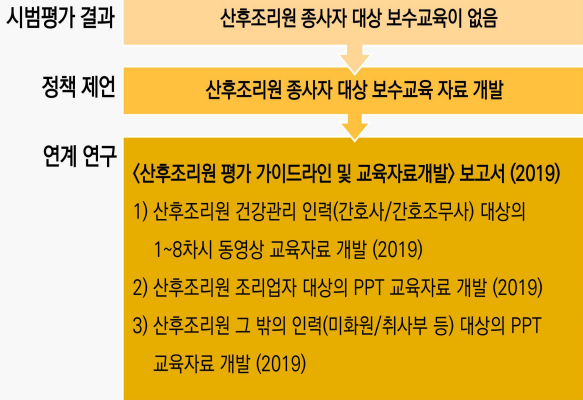
별책 1: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사례집 (2019)

육아정책연구소

9

01.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등 중심으로

정책 제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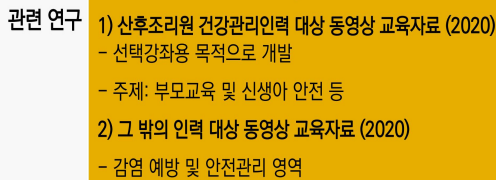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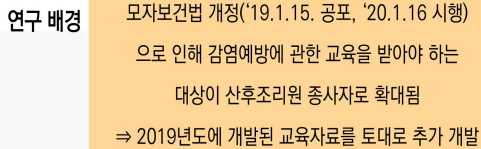
<건강관리인력 동영상 교육자료 및 조리업자 교육 내용>

차시	주제	비고
1차시	감염관리체계	감염 관리
2차시	감염관리 실무 1	
3차시	감염관리 실무 2	
4차시	신생아 감염관리 1	
5차시	신생아 감염관리 2	
6차시	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	
7차시	안전 관리 1	안전 관리
8차시	안전 관리 2	

<그 밖의 인력 대상 교육 내용>

차시	주제
1차시	감염의 정의 및 목적
2차시	환경 관리
3차시	화재 및 안전관리
4차시	급식 관리
5차시	세탁물 관리

01.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등 중심으로



<산후조리원 인력 대상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내용>

차시	주제	비고
1차시	모자보건법령의 이해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대상 동영상 교육자료 내용
2차시	신생아 돌보기1	
3차시	신생아 돌보기2	
4차시	아빠의 역할	
5차시	애착발달과 건강한 양육	
6차시	산후우울증	
7차시	감염, 화재 및 시설 안전 관리	그 밖의 인력대상 동영상 교육자료 내용
8차시	급식, 환경 및 세탁물 관리	



02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 방안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1.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개요
2.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3. 산후조리원 컨설팅 매뉴얼 제작
4. 컨설팅 준비 및 운영
5. 2019년도 1~3차 컨설팅 운영결과
6. 컨설팅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2019/2020년)
7. 수기공모
8. 추가 연계 연구(2020년도)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1.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개요



컨설팅 모형 개발
(2019년도)
컨설팅 매뉴얼 제작
(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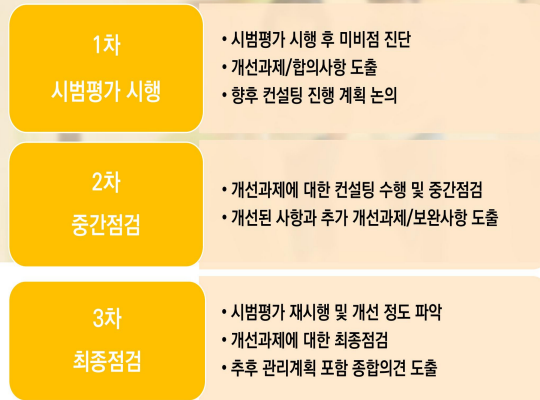
대상 기관 설명회
컨설턴트 모집 및 관리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 수행
 • 1~3차 컨설팅
 • 1일 방문 컨설팅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2.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2.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2.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1~3차 컨설팅	주요내용	비고(2019)	비고(2020)
1차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평가 시행과 컨설팅 병행 시범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컨설팅 진행계획 논의 현장과 협의하여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턴트 2명이 시범평가와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2명(팀장, 팀원)이 시범평가와 컨설팅 수행
2차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점검 및 피드백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팀장 1명이 컨설팅 수행
3차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과 시범평가 병행 컨설팅 내용 이행 여부 최종 점검 	컨설턴트 2명이 시범평가와 컨설팅 수행	팀장 1명이 시범평가와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만족도 조사(정성평가) 컨설팅 진행 및 결과보고 	향후 사업에 활용	향후 사업에 활용
1일 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영역별 준비 사항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안내 		컨설턴트 1인이 수행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3. 산후조리원 컨설턴트용 교육 매뉴얼 제작 (2019년도)

영역별 전문가가 개발한
컨설팅 매뉴얼 내용 수합
및 수정 자문회의

산후조리원 영역별
전문가 12명에게 관련자료
배포 및 매뉴얼 작성 의뢰

컨설턴트 및 컨설팅 대상 기관 사후
간담회 의견 수렴 후
매뉴얼 최종보완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 지침, 서식 등
수집 및 검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뉴얼 내용 조율 및 수정;
서식 현장 배포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4. 컨설팅 준비 및 운영

구분	단계	19년도 주요내용	비고	20년도 주요내용	비고
1	계획 및 홍보	-컨설턴트 위촉 및 교육 -컨설팅 사업/집체교육 홍보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협조	-컨설턴트 위촉 -컨설팅 사업 홍보	보건복지부 협조
2	설명회	-산후조리원 컨설팅 지침 교육 -컨설팅 진행방법 안내	원하는 산후조리원 모두 참여 가능	-온라인 컨설팅 사업 설명회 실시	원하는 산후조리원 모두 참여 가능
3	1~3차 컨설팅	-컨설팅 운영체계 안내 -컨설팅 신청 및 접수 -자체 서면평가지 작성 혹은 설명회 당일 제출	설명회에 참석한 산후조리원 중 선정	-온라인 컨설팅 사업 설명회 영상을 모두 시청한 산후조리원 중 선정	온라인 컨설팅 사업 설명회 영상을 모두 수강한 산후조리원 중 선정
	1일 방문 컨설팅	-1일 방문 컨설팅 홍보 -1일 방문 컨설팅 신청 및 접수 -2020년도 1~3차 컨설팅 참여 동기유발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협조	-1일 방문 컨설팅 홍보 -1일 방문 컨설팅 신청 및 접수 -2021년도 1~3차 컨설팅 참여 동기유발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협조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4-1. 컨설팅 준비 및 운영: 설명회

	설명회 형태	참석기관	비고
2019	오프라인	- 산후조리원 191개소 - 보건소 19개소 - 시청 1개소 - 총 234명 참석	- 2019.7.23~1차 설명회 개최 - 2019.8.13~2차 설명회 개최
2020	온라인	- 산후조리원 62개소	- 2020.6.24~7.4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각 산후조리원에게 아이디를 부여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 - 설명회 기간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 영상 수강 오픈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4-2. 컨설팅 준비 및 운영: 컨설턴트 자격 기준

분야	자격 기준
보건 (간호사)	-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수간호사나 팀장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간호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산후조리업 운영자	- 산후조리원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보육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영유아보육관련학과 석사 이상 졸업자 -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경험자 또는 평가인증 사업담당자 - 평가 관련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안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소방)안전 관련학과 석사 이상(석사, 박사수료, 박사) - (소방)안전 관련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안전 관련 실무/진단 경력 2년 이상인자 - (소방)안전 관련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을 소지한자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4-3. 컨설팅 준비 및 운영: 컨설턴트 모집 및 관리

2019년도 컨설팅 사업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수(최종)	2020년도 컨설팅 사업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수(최종)
(보건) 간호사 35명 보육 6명 산후조리업 운영자 6명 안전 5명 총 52명	(보건) 간호사 21명 총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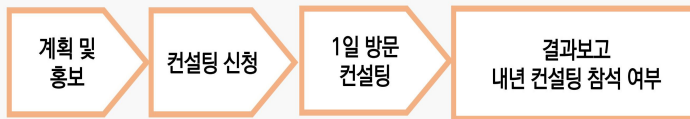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4-4. 컨설팅 준비 및 운영: 컨설팅 수행 순서

[1~3차 컨설팅 순서]



[1일 방문 컨설팅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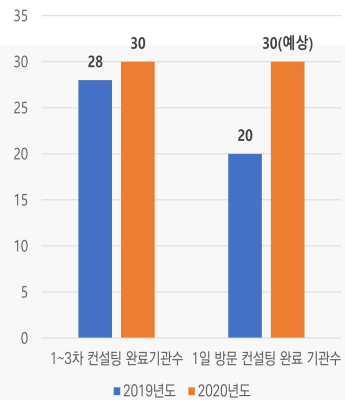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4-5. 컨설팅 완료 기관 수

	2019년도	2020년도
1~3차 컨설팅 완료 기관수	28개소	30개소 (*1차컨설팅 완료 기준)
1일 방문 컨설팅 완료 기관수	20개소	10개소(목표:30개소) *(10/30기준)

컨설팅 완료 기관수 (2019/2020년도)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5. 2019년도 1~3차 컨설팅 수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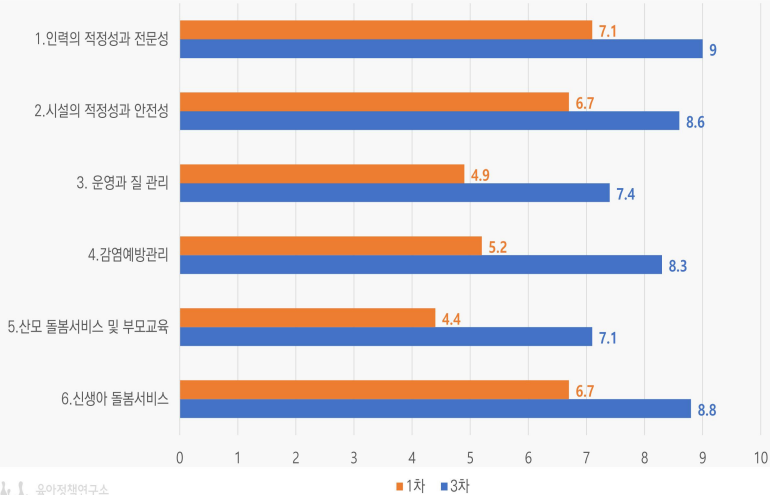
※ 2019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전/후 점수의 차이 검증 결과

- 산후조리원 평가의 15개 영역, 98개 항목 중
인력 적정성 및 시설 적정성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가 나타났음.
- ⇒ 96개 평가 지표에서
컨설팅 전보다 컨설팅 이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5. 2019년도 1~3차 컨설팅 수행 결과

〈2019년도 1~3차 컨설팅 전후 차이 검증 결과〉



02.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6. 컨설팅 사후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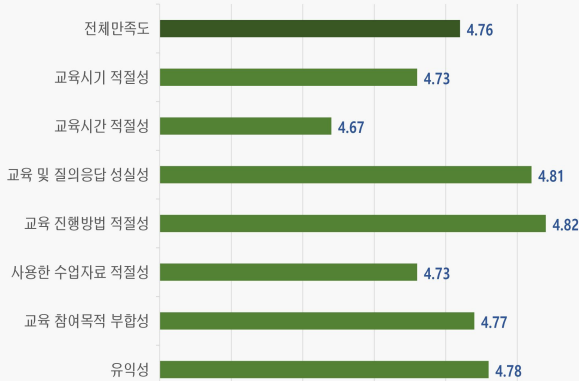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19년도)

- 산모 낙상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신생아 낙상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손씻기 포스터 배포(질병관리청)

02.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6. 컨설팅 사후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2019년도)

〈부모교육 만족도〉



부모교육 (2019년도)

- 컨설팅 대상 산후조리원 중 부모교육 신청 기관 17개소
- 12월 한달 간 부모교육 실시
- 부모교육 내용: 아이 돌보기, 수유하기, 우리아기 성장발달,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안전사고 예방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6. 컨설팅 사후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2020년도)

〈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부모교육 자료 소책자 목차 〉

목차	
I	아기와 관계 형성하기 1. 부모됨이란? 2. 내 아기 이해하기 3. 아기 돌보기는 애착행위
II	신생아 돌보기 1. 아기돌보기 2. 수유하기 3. 우리아기 성장 발달
III	신생아 건강관리 1. 신생아 건강유지 2. 신생아 건강문제 대처법 3. 영아 심폐소생술
IV	산모 건강관리 1. 산욕기의 신체변화 2. 산후운동 3. 산욕기 이상 4. 산후조리 FAQ

부모교육 책자 제작 및 배포 (2020년도)
부모교육 책자 배부(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7. 수기공모 (2019년도)

02.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2020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01 **순천미즈산후조리원 (장기순 팀장)**
컨설팅단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수정하고 부서원 간에 회의하면서 중간점검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은 가장 힘들고 지치지만 충분한 기간이었다.

02 **피오레산후조리원 (권수옥 팀장)**
평가 컨설팅을 준비하며 문서 작업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조리원의 모습이 보여 힘든 만큼 자리가 잡혀가는 듯 하여 뿌듯하기도 했다.

03 **송파구공공산후조리원 (지은경 차장)**
미진사항을 하나하나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고나 할까? 처음의 긴장되는 두근두근 떨림에서 다음 차수가 기다려지는 설렘의 느낌!

***수기공모는 2020년도에도 시행될 예정**

04 **미르피아산후조리원 (이경희 팀장)**
컨설팅 과정이 진행되면서 컨설팅단가가 많이 준비됐다고 힘을 돋우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05 **휴산후조리원 (양혜숙 실장)**
컨설팅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기와 산모들의 안부를 위한 기초작업임을 알게 되었고 아기와 산모의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06 **설렘산후조리원 (남정숙 원장)**
컨설팅단의 격려와 함께 부족했던 것을 계속 해서 보완하며 세 번의 컨설팅을 마치니,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큰 자신감이 생겼다.

8. 추가 연계 연구 (2020년도)

〈현재 진행 중인 모자보건증진 관련 연계 연구〉

	연구명	수탁처
1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타당성 연구	서울시 강남구청
3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토론

유구종 회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정선욱 회장 (한국아동복지학회)

최병민 부회장 (한국모자보건학회)

김혜영 이사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창곤 선임기자 (한겨레신문)

문유진 이사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토론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에 대하여

유구종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있어 육아친화 도시나 마을은 이 시대에 친숙하지는 않지만 미래 생태계 관점에서 꼭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KICCE 육아친화마을’을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춘 생태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지닌 도시나 마을로 접근한 발제는 주지하듯이 적절한 접근이라 본다. 육아친화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조성 모형과 방안은 구체적으로 잘 제안해주셨다고 판단되는 바, 본 토론에서는 미래교육적 관점에서 영유아의 경험과 놀이를 강조하는 유아교육·보육 환경 관점을 부가해보고자 한다.

도시나 마을의 교육환경은 영유아기 배움의 특성, 경험과 놀이가 충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교육기관, 학교교육, 영유아의 경험과 놀이는 배움을 이루는 교육환경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도시나 마을의 생태환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미래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결되는 지역사회 친화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발제자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친화마을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코로나 공존(with Corona)’ 시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은 중요한 요인일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상호관계성이 생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관계들의 집합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교감하고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양한 존재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경이나 맥락에 따른 복잡한 교육·보육 생태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발제자가 제시해주신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제안된 보육 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 요소를 중심으로 ‘코로나 공존’ 시대의 디지털 환경을 비롯한 맥락적 관점의 항목들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에 임함에 있어 ‘코로나 공존’ 시대에서의 교육·보육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생태계의 교류와 소통 방안으로 화상상담을 포함한 디지털

털 기록과 전시, 공유를 중심으로 부가해보고자 한다.

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과 교육·보육 생태계

미래사회는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성과 통합이 요구되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습 환경과 놀이 환경이 강조되어야 한다(유구중, 2020). 이러한 교육환경의 다양성은 미래유아교육의 키워드인 문제해결과 코딩적 사고로 이어지는 하이퍼 정보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6)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기술의 하위영역으로는 비판적 사고/문제해결(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모두 하이퍼 정보환경과 관련이 있다할 것이다.

2. 디지털 기록과 화상 시스템

발제자께서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바텀업(Bottom-up) 보육정보환경 조성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요자 요구 반영 관련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에서의 실시간 정보교류와 디지털 기록·전시·공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는 바이다.

첫째, 구축 비용 부담이 없는 실시간 화상 면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 드린다. 최근 무료 출시된 ‘카카오휴터’나 코로나 화상강의시스템으로 새로 출시된 ‘밴드’와 같은 앱에 무료 화상 회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바 ‘코로나 공존’시대의 디지털 공유사회로의 친화마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를 위한 육아친화마을 내 인트라넷 구축을 비롯하여 영유아 보육환경과 정보환경에 대한 디지털 기록과 디지털 전시, 공유 기능이 부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친화성 진단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지역별 체크리스트 앱 개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집단과의 실시간 상담과 상담 콘텐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보육 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 요소를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온라인 자료 제공 DB 네트워크 장치가 부가될 경우 교육·보육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유구종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 스마트 교육 및 매체. 경기: 정민사.

유구종 (2020). 유아교육의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성에 대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교육개발원, 171-174.

토론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문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 Child Focus, Family Centered, Community based practice에 비취볼 때,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기본 방향에 동의합니다.
-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제언을 덧붙이면
 - 1) 기존 마을 사업과의 관련성: 예를 들어 [그림1]에 빠진 시간체계(chrono system)를 고려할 때 육아친화마을의 주 대상인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기반의 온종일 돌봄 체계 등의 체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존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 육아친화마을조성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매 4년마다 계획 수립)과 관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장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사회복지장 부분을 아울러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점검하고 민과 관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강혜규 외, 2018).
 - “도시”가 아닌 “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또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 결국, 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하는지”가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차별성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2) 육아친화마을은 추진체계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발표문의 조성 방안에는 “누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 중심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문헌〉

강혜규 외(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1.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왜 중요한가?

- 과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돌봄의 주요한 영역들은 전문적인 기관으로 이행되거나 상업적 서비스로 대체, 혹은 (가사노동의 경우) 기계화에 힘입은 자동화 등으로 변형되는 추세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출산과 출산후 산후조리 영역 역시 병원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와 상업적인 돌봄서비스로 분화, 전환되어온 90년대 이후의 트렌드는 전혀 이례적인 현상은 아닐 것임. 특히 기능적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산후조리가 상업적 서비스로 대체되어온 것은 결과적으로 가족이 지역 및 친족공동체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의 결합으로 이해되면서 가족의 범주는 매우 좁고 친밀성 중심의 관계로 재정의되는 유연(혹은 유동적?)한 가족으로의 전환과 무관하지 않음. 또한 여성의 산후조리 역시 다양한 보건 이슈와 연관되고, 여성의 신체와 몸, 그리고 영유아기 건강 및 생활습관의 과학화라는 새로운 관점이 대중들에게 수용되면서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상업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전환되어온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직후 산모가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친밀성 영역으로서의 가족이 아닌 가족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양한 함의를 갖는 것임.
- 첫째 과거 산후조리는 먼저 출산을 경험한 선세대(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유경험 선배나 동료(친족관계의 여성이나 이웃여성)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육아와 출산후 여성의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지혜를 집중 전수받는다라는 점에서 철저히 여성적 영역인 동시에 연령이나 경험의 유무에 따른 위계적 관계가 내재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중적 경험의 장(여성간 연대와 위계)으로 기능함. 그러나 이것이 상업적 서비스로 대체되면서부터는 소지한 자본 혹은 이용자격에 따라 철저한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시장의 영역으로 전환함. 즉 여성의 계급계층적 지위에 따라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별을 경험하게 됨.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의 등장과 정책적 관심의 부상은 의미있게 지켜봐야 할 것임.

- 둘째, 4차산업의 시대와 부합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즉 감염병의 위험이 전세계를 위협하는 자금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산모와 영유아의 보건과 건강이 상업적 재화의 거래 장인 시장의 한가운데서 작동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맡겨져 있음은 상호 모순적 가능성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예컨대 철저히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산후돌봄은 전문성은 낮지만, 철저히 개별화된 공간에서 특수한 이해관계인들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임. 이에 비해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정한 규모의 클라이언트를 상정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적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나 위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관련 문제 발생시 그 피해가 커지는 위험으로 인해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임.
- 셋째 전통적 의례와 관습으로 벗어나 여성의 자율적 산후관리로의 기획이 가능한 자율적 영역인 동시에 보건 및 의료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 다만, 아직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산후조리서비스의 상업화는 결국 여성의 산후조리와 초기 영유아 돌봄의 계급적 위계화와 함께 상품화를 촉진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즉 가부장적 유습과 위계에서는 탈피할 수 있지만, 철저히 개인의 사회적 자본에 좌우되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서비스의 이용을 넘어 여성과 유아의 삶이 어느 계층적 궤도로 편입될 것인가를 함축하는 상징적 재화의 소비로 읽혀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넷째, 상업적 서비스로 기획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재화생산을 위해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소비담론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더욱 여성을 신체화하고 소비화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육아의 과학화, 전문화라는 미명하에 상당부분 돌봄관련 소비재 시장에 포획되는 계기로도 활용 가능함.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산후조리서비스는 단순히 보건, 의료, 돌봄의 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상품화, 특히 성상품화, 돌봄의 상품화 증폭기제로 작동되기도 함.

2.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방안의 문제의식과 그 해법은 정확한 것인가?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 관심은 지극히 타당한 것임. 그러나 공공서비스 보다는 사인화된 서비스로서 확대되어온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실태를 파악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님. 특히 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개입지점은 대단히 복

잡한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시범평가라는 사족을 통해 제한적 의미 속에서 그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다만 ppt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지나치게 간략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전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적되는 몇가지의 논의 역시 적절한 것인가의 고민이 없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제기된 산후조리원 관련 과제라는 점에서 몇가지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함.
- 이 연구는 2019년 1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당위성에 기반하여 출발하고 있음. 따라서 논의 전반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발전 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지향점에 따라 전개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산후조리원에 관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의식의 틀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다분히 분석적인 보고서이기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안만을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논의 전반이 매우 실제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일 수 있음. 그러나 이로써 산후조리원이 갖는 제도적, 문화적, 실천적 쟁점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측면만 부각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대부분 제한된 발표문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을 것이나 독자로서는 부족한 정보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적지 않음. 연구발표문만으로는 향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온 산후조리원들을 모두 평가 혹은 컨설팅을 염두에 둔 논의인지, 혹은 종사들에 대한 교육은 보건, 부모교육 관련 정보 제공이라는 두가지 영역으로만 기획한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조리원 종사자들을 어떻게 분류하여(예컨대 종사경력이나 자격증 유무 등) 몇 차시로 구획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마련 여부, 향후 컨설팅 결과에 준한 책자 배포 등의 계획 등 구체적인 해당 사업의 기획 여부 또한 궁금해짐. 또한 건물 등 인프라 안전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안전, 즉 신생아 방임이나 학대 등에 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이나 정보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보건 영역에서 충분히 다루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역시 아동과의 초기 애착에 있어 부모의 역할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성차별적인 부모됨의 학습으로 인한 성역할의 고착화 가능성, 나아가 신생아 돌봄과정에서 제기되는 무의식적인 성차별적 성구분 방식이 재생산되는 현실에서 오로지 부모됨의 역할만을 강조하거나 교육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게 부모교육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끝으로 컨설팅 사후관리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교육이나 관련 책자 제공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닌 상업적 산후조리원에 관해 물질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짐. 실제로 이러한 의구심의 저변에는 무엇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인가, 혹은 실제로 작동 가능한 기제는 무엇인가 등의 고민과 맞닿아 있기 때문임.

토론

전환기, 창의적 육아정책을 기대하며 -육아정책연구소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지난 15년의 성장동안 우여곡절과 부침을 거치면서도 이 나라 육아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곧추 세우는 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어느덧 15주년을 맞게 됐는데, 축하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아픔에 대한 깊은 시대적 감수성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분발 또한 촉구합니다. 한 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육아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발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발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세부적인 논평을 해주실 것으로 사료되기에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육아저역과 관련해 몇 가지 첨언을 드릴까 합니다.

1. 코로나 위기 시대의 포기할 수 없는 아동돌봄서비스

코로나 19가 지구촌을 전방위적으로 습격하면서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공포, 재난저 사태가 인류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학교폐쇄, 개학연기 등으로 일상에 타격이 적지 않는데, 정부부처와 육아연등 연구기관에서도 이미 나름의 대처방안을 내놓았지만 특히 많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나, 혹은 여러 장애아동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여러 조치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들은 또한 취약 및 한 계층인데, 여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보루라고 자처했던 공적서비스가 멈췄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에 따라 고스란히 아이들이 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문을 닫으면 누가 가장 힘든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방역에 따라 불가피하지만, 너무 쉽게 공적서비스를 방기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이나 성찰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적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방역도 가능한 지혜와 묘안을 생각해 내지 않고서 너무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코로나 이후 장애아동의 경우 초기에 돌봄이 가장 필요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받는 충격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공적서비스는 그나마 이런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낮추어주는 요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육아연의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2.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은 더 많은 “아이들의 놀이”학습.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영유아 및 아동기의 중요성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산전이나 출산 직후, 그리고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안전성, 공공성은 이런 맥락에서 더 없이 중요한 과제이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와 관련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육아연이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벌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육아정책의 범위를 태아에까지 적극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2020년은 육아정책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육아연이 준비해온 개정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유아들에게 적용되는 해입니다. 개정누리과정의 핵심적 내용이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통해 배움을 구현할 수 있는 유아놀이중심의 내용입니다. 건강하고 감성풍부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더불어 사는 미래의 인간상을 반영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유아놀이입니다.

올 초에 코로나가 본격 창궐하기 전에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핀란드가 어떻게 혁신과 포용의

아이콘이 됐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갔는데, 현지의 학자들이 강조한 게 바로 혁신과 포용의 밑거름이 배움(교육을 포함)이며, 그 핵심이 어릴 때의 놀이학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이고 역량 있는 개인은 영유아기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컨대,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달나라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 방법을 학습합니다. 로켓이 왜 필요하고, 로켓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아가 우주를 연구하는 등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놀이로 이뤄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우주비행사에 대해 상상을 하는 식입니다. 이런 상상이 혁신의 기초가 됩니다.”

이름하여 놀이기반 교습입니다. 이런 교습법과 교육관은 유년기 교육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래서 핀란드 어린이집에서는 알파벳이나 숫자, 어휘를 가르치기는 데 열중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방문한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 학습 목표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몇 시간은 야외에서 반드시 놀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식사 함께하기, 서로 도와가며 우유를 잔에 따라주기, 설거지 등을 해결하는 법 등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놀게 해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장래의 학습을 위한 첫걸음이란 인식에 기초한 교육입니다.”

유치원 교육에서의 창의력이 핀란드 혁신과 연관돼 있습니다.

특히 역할 놀이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증진하는 데 핵심입니다. 유년기에 갖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한 핀란드 전문가는 스칸디나비아 소속 국가들이 입학 연령을 낮춘 것도 이런 교육관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아는 내용일 겁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도록 힘쓰는데 육아연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정부가 국가 미래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이는 국가의 정책집행의 중요한 로드맵입니다. 이들 보고서에서 교육개혁은 늘 깊이 있는 이슈이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미래의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미래에 어떤 새 기술이

소개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울 줄 아는 시민, 실패도 배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전할 줄 아는 시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런 개정누리과정을 적극적으로 진척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최대한 비상구를 찾아야합니다. 감염병은 이제 우리와 상존한다는 가정아래 안전과 이런 놀이중심 학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3. 전환기의 육아정책 매트릭스

바야흐로 디지털자본주의로의 전환의 시대입니다. 기술, 인구, 기후위기 등에 따른 노동시장 등의 변화와 도전이 큼니다. 여기에 감염병과 상존하는 시대가 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연의 육아정책의 시야는 더 넓고 더 창의적이고 더 융합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주문드리고 싶네요. 육아정책과 고용 산업, 복지, 기후위기 등 환경정책과의 연계 및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말처럼 쉽지 않지만 고민해야할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좋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육아연이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거듭 15주년을 축하드리며, 토론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장)

1. 2030 세대의 결혼과 출산

- 2030세대에게 결혼, 출산은 더 이상 생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 아닌 선택의 문제임.
-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을 경험하고, 직장동료나 지인들을 통해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더 가중되어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됨. 또한 육아를 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여성들은 ‘일’ 과 ‘육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함.
- 이와 같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외, 육아를 하는 데 드는 비용, 신체적인 부담, 아이가 태어날 사회의 문화적 측면,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2. 출산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들

-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육아 환경 문제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줌.
- ‘육아친화마을’의 요소인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인식 개선, 공동체적 지원은 ‘아이들이 살아카기에 행복한 사회인가’를 고민할 때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 아이와 함께 눈치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일과 양립가능한 육아 지원 시스템이 지역사회 내에 마련되어있다면 출산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임.

3. 육아친화마을의 필요성

- 발제에서 언급된 육아친화마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는 바임.
- 한국에서 출생율(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측해볼 수 있음.
- 세종시는 출산 지원 정책으로 첫째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음. 육아에 있어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들에게 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일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육아친화마을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육아친화마을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권리를 보장받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Tel. 02-398-7700 www.kicce.re.kr